생분해성 섬유로 만든 의류

일본의 아식스, 가네보, 시마쓰 3개 회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분해하는 생분해성 폴리유산 섬유를 사용한 티셔츠를 만들었다.

이 티셔츠는 지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였던 일본 대표선수 가운데 약 300만여명에게 아식스에서 제공하였다. 이 소재는 시마쓰사가 개발한 생분해성의 폴리유산수지 '라쿠티'를 원료로 하고, 가네보사에서는 의류용으로 상품화시킨 '라쿠트론'을 이용하여 아식스사가 티셔츠로 만들었는데,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실용화된 생분해성 섬유의 의류이다. 폴리유산 섬유와 면사로 편성한 생지의 혼용율은 면 65%, 라쿠트론 35%이다.

생분해성 섬유란, 자연계의 미생물에 의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의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합성섬유인데, 환경보전을 배려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메이커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.

<그림>